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고객만족을 동시에 실현하는 인간중심의 기업

성화식품(주)

제 1단계 사업완료 제 2단계 사업인 육가공사업과 프랜차이즈 체인사업으로 제2의 도약 추진

국 내 최고의 닭고기 전문회사로의 성장을 지향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기업이 있다.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에 위치한 성화식품(주)(대표이사 이승준)가 바로 그 곳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모토로 최고 위치로서의 성장을 구가해 나가고 있는 성화식품은 그 이미지에 맞게 경기침체라는 위기에서도 계속 가공공장의 준공에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감으로써 제 2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 경제의 최대위기 중의 하나로 인식됐던 IMF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98년 5월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성화식품은 주위의 우려를 비롯기나 하듯 종계 사육에서부터 도계,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가며 빠른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명실상부한 닭고기 전문회사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지난 99년 KS 및 ISO 9002획득

에 이어 2001년 4월에는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돼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업체임을 인정받고 있는 성화식품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창립 다음해인 99년 312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는 성화식품은 지난해 170여명의 종업원에 469억원의 매출을 올려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미 어려운 시기에 종계·부화·사육·도계·유통의 안정화라는 성공적인 도약을 경험한 바 있는 성화식품의 제 2단계 도약의 시작은 가공제품의 생산이다.

지난 2001년 일본 난사스(Nansatsu Foods. co. Ltd)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닭고기 부산물 수출을 시도했던 성화식품은 소비자에게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가공제품의 개발을 위해 전략적인 제휴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기름을 이용한 조리제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화식품은 이러한 점을 감안, 바비큐 그릴제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후라이드류의 닭고기 제품이 가공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만큼 생산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는 이승준 사장은 제품개발을 위해 일본 난사스사와의 제휴이외에도 의식 전문교수를 초빙, 1차적으로 총 12종의 제품개발을 끝냈다고 밝혔다.

닭고기 가공사업의 시작이 내가 사육한 닭을 소비자의 식탁에 올리기까지 직접 관여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는 이승준 사장은 성화식품의 완제품공급을 국내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 진출로 이어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일본 난세스와의 기술제휴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닭고기 부산물 수출을 통해 일본진출의 경험을 쌓아온 만큼 충분한 승산이 있습니다. 일단 반제품 수출을 위한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돼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가공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게될 프랜차이즈 사업 역시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가고 있는 만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명일동에 직영 쿠키텔 1호



▲ 이승준 대표이사

점을 개점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성화식품은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체인 사업은 소비자와 회사가 직접 부딪히는 것인 만큼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직영점을 충분히 운영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사업 전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화식품 이승준 사장의 철저한 프로의식은 기존의 회사 운영 방침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관건입니다.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나와 협력관계에 있는 상대방도 이익이 있는 평등한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내 잇속만 챙겨가며 상대방을 대한다면 나와 거래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게 될 것이고 결국 나 자신도 도태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회사 직원은 물론이며 계약사육농가, 거래처 등 모두에게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에 만능이 될 수 없다는 이승준 사장은 다만 진솔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려간다면 그간의 회사 경영철학을 밝히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화식품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회사발전을 위한 경영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어 항상 용기가 되고 있다는 이승준 사장은 성화식품이 국내 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최상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지난 2월 서울 명일동에 개점한 직영 쿠키텔 1호